

# 케인즈經濟學에 있어서의 不確實性的 意義에 대하여

李 廷 雨\*

……………〈目 次〉……………	
I. 序 論	2. 流動性偏好說
II. 不確實性和 케인즈의 方法論	IV. 不確實性和 케인즈 以後의 케인즈經濟學
1. 不確實性和 經濟學의 基本公準	1. 不確實性和 新古典派綜合
2. 期待와 케인즈의 理論模型	2. 均衡模型과 歷史模型
III. 不確實性和 케인즈의 經濟理論	V. 結 論
1. 投資理論	

## I. 序 論

1870年代의 限界革命 이래 經濟學의 正統派의 자리를 지켜온 新古典派經濟學에 대해 정면에서 叛旗를 들고 일어난 케인즈經濟學의 理論的 貢獻은 과연 무엇이며 兩理論의 本質的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問題는 『一般理論』出版 直後부터 치열한 論爭의 對象이 되어 왔다. 20여년에 걸쳐 계속된 이 論爭은 최종적으로 新古典派綜合(neoclassical synthesis)이라고 하는 妥協으로 一段落되었음은 周知의 사실이거나 이것을 결국 新古典派經濟學을 復活시키고 동시에 經濟理論에 있어서의 케인즈革命의 意義를 否定하는 것을 그 內容으로 하였다. 그 결과 傳統的인 微視分析에서의 新古典派經濟學의 妥當性이 다시 확인되는 한편 케인즈經濟學은 所得—支出理論 또는 IS-LM模型이라는 聯立方程式體系로 定式化되어 標準的인 經濟學教科書마다 紹介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근자에 와서는 이와 같은 케인즈經濟學의 正統的인 解釋에 대해 強力한 批判을 提起하면서 여러가지 角度에서 케인즈革命의 意義를 再評價하려는 움직임이 매우 활발히 展開되고 있어 마치 케인즈經濟學에 있어서의 第2의 百花齊放, 百家爭鳴의 時代가 到來한 듯한 느낌마저 없지 않다. 예컨대 클라우어(R.W. Clower)와 라이온후부드(A. Leijonhufvud)는 IS-LM 模型에 의한 종래의 正統的 解釋은 케인즈經濟學의 진정한 意味를 歪曲시켰다고 批判하면서 케인즈가 經濟理論에

\* 서울대학교 大學院 經濟學科 博士課程

끼친 貢獻을 一般不均衡理論이라는 觀點에서 전면적으로 再解釋함으로써 學界에 크나큰 波紋을 던진 바 있다.

그런데 이들의 再解釋과는 論點을 달리 하지만, 동시에 케인즈經濟學의 正統的 解釋과도 전혀 對立되는 立場에 서있는 一群의 學者들이 있으니 이들은 케인즈經濟學의 理論的 革新이 不確實性和 期待라고 하는 非傳統的 概念의 기초위에서 새로운 方法論을 確立한 데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立場에 서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서는 삭클(G.L.S. Shackle)이라는 異端的 經濟學者를 들 수 있는데 그는 1930年代부터 不確實性下의 人間行動을 주요한 研究課題로 삼음과 동시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始終一貫하여 케인즈經濟學의 核心은 不確實性이란 概念에 있다는 持論을 固守하고 있다.<sup>(1)</sup> 新古典派綜合이 착착 완성되어 가던 1940·50年代만 하더라도 그의 主張은 아무도 듣는 사람 없는 荒野의 외로운 아우성에 불과하였으나 최근의 케인즈經濟學 再解釋의 물결속에서 그의 發言權은 상당히 강해진 듯하다. 왜냐하면 최근 적지않은 수의 學者들이 그의 主張과 近似한 論旨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新케인즈派(neo-Keynesians)에 속하는 로빈슨女史와 크레겔(J.A. Kregel) 이외에 데이비드슨(P. Davidson), 민스키(H.P. Minsky), 아시마코풀로스(A. Asimakopulos), 웨인트라우브(E.R. Weintraub), 그리고 日本의 菱山泉, 片山隆男 등이다. 물론 이들의 經濟學的 立場은 각각 달라서 10人10色이라 할만 하지만 적어도 케인즈經濟學의 本質을 不確實性이나 期待의 概念에서 파악하려는 점에서만은 共通點이 발견된다.

최근 코딩톤(A. Coddington)과 같은 사람은 이들의 主張을 뭉뚱그려 「根本的 케인즈主義」(fundamentalist Keynesianism)라고 命名하면서 既存의 正統的인 케인즈解釋 및 클라우어, 라이온후푸드의 再解釋과 對比시키고 있지만<sup>(2)</sup> 筆者의 見解로는 이들 一群의 學者들이 하나의 學派 내지 主義를 形成할만큼 충분히 同質的인 哲學과 分析方法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케인즈革命의 意義는 新古典派經濟學에 대해 方法論的으로 근본적인 批判을 提起한 것이라고 하는 이들의 主張은 충분히 檢討할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만일 經濟理論에 있어 케인즈革命이 완전한 成功을 거두었다고 한다면 『一般理論』이 出刊된지 4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새삼스러이 케인즈經濟學의 本質에 대해 曰可曰否한다는 것은 쓸모없는 訓古學의 弊端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로빈슨女史가 痛歎하듯이 經濟理論에 있어서의 케인즈革命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現代經濟學의 正統派의 地位를 점하고 있는 것이 新古典派의 分析方法과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繼承한 新新古典派經濟學인 이상이

(1) 삭클에 의하면 正統的인 케인즈안들은 물론이요 라이온후푸드까지도 완전한 情報과 確實性의 世界를 想定하고 있다고 한다. Shackle [19]

(2) Coddington [4]

들 소위 根本的 케인즈主義者들의 主張은 주의깊게 傾聽되어야 할 것이다.<sup>(3)</sup> 왜냐하면 이들이 主張하는 바 新古典派經濟學에 대한 케인즈의 批判은 오늘날의 훨씬 洗練되고 精緻化하였던 하나 역시 과도히 抽象적이고 非現實적인 新新古典派經濟學에 대한 批判으로 看做하더라도 크게 正鵠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로소 케인즈經濟學 研究의 現代的 意義가 發見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의 資本主義經濟의 危機와 經濟學의 昏迷相 속에서 케인즈經濟學에 대한 再評價가 簇出하는 理由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正統적인 新新古典派經濟學의 無能 내지 不毛性과 밀접하게 關連된다고 생각한다. 本稿의 目的은 케인즈經濟學에 있어 不確實性的 意義를 再確認하고 그러한 觀點에서 그의 理論과 新古典派經濟學을 比較해 봄으로써 兩理論의 本質적인 差異를 抽出해내는 한편 나아가서는 新新古典派經濟學에 대한 批判的 眼目을 갖추는 데에도 간접적이거나 一助가 되고자 하는 데 있다.

本稿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II에서는 먼저 方法論적인 次元에서 케인즈가 新古典派經濟學을 批判한 主要한 根據는 不確實性和 期待의 概念에 있음을 밝히고 나아가서 케인즈가 構想한 새로운 理論模型에 대해 檢討한다. III에서는 이러한 方法論의 差異가 구체적으로 理論上에 어떠한 革新을 가져왔는가 하는 問題에 대하여 投資理論과 流動性選好說을 中心으로 하여 考察한다. IV에서는 케인즈經濟學에 있어 그렇게나 主要한 不確實性和 期待의 概念이 그후의 解釋과 論爭過程에서 거의 완전히 除去되어버린 까닭을 케어본 뒤 이상의 論議가 앞으로의 經濟學의 發展에 대해 어떠한 含蓄을 내포하는가 하는 問題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나마 吟味해 보고자 한다.

## II. 不確實性和 케인즈의 方法論

### 1. 不確實性和 經濟學의 基本公準

『一般理論』이 出刊된 直後부터 벌어진 케인즈와 新古典派 사이의 치열한 論爭의 過程에서 수없이 많은 著書와 論文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케인즈 自身은 비교적 超然한 態度를 견지하고 있었다. 그는 利子理論에 관한 몇 편의 論文을 쓴 것 이외에 『一般理論』에 대한 自身의 全體的 見解를 披瀝한 것으로는 「雇傭의 一般理論」이라는 단 한편의 論文을 썼을 뿐인데 그나마 이 論文조차 그 후의 論爭의 渦中에서 거의 忘却되다시피 되어 버렸다.<sup>(4)</sup> 根本的 케인즈主義者들은 바로 이 論文에 非常한 注意를 集中시키고 있으며 여기에

(3) Robinson [15]

(4) Keynes [7]

서 케인즈革命的인 진정한 意味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 論文은 원래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誌의 1936년 11월호에 실린 『一論理論』을 批判하는 4편의 論文에 대해 케인즈가 答辯하기 위해 쓴 것이지만 그는 쓸모없는 자질구레한 論爭에 일일이 答하는 대신 『一般理論』의 基底에 깔려 있는 自身の 基本思想을 다시 開陳하는 形式을 취하고 있다. 그의 主張에 따르면 自身の 理論을 新古典派經濟學과 구별지우는 가장 중요한 特徵은 어떤 새로운 分析道具나 概念에 있는 것이 아니라 世界觀 내지 方法論의 差異에 있다. 그것은 未來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確實하게 알고 있는가 하는 간단한 問題에 관한 것이다. 케인즈에 의하면 新古典派經濟學者들은 우리가 現在뿐만 아니라 未來의 모든 事實을 確實하게 알고 있다는 基本假定 위에서 經濟理論을 展開 하였다 한다. 이것은 물론 그들이 모든 變化와 不確實性和 期待가 완전히 捨象되는 그러한 體系만을 다루었음을 意味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피구와 로버트슨과 같은 學者는 벌써 不確實性이란 問題를 분명히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新古典派經濟學者들은 「事實과 期待는 언제나 一定하고 計算可能한 形態로 주어진 것으로 假定하였고, 危險이란 것을 認定하기는 하였으며 별다른 注意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精確한 會計學的 計算이 可能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비록 공공연히 論議한 것은 아니지만 確率을 計算함으로써 不確實性을 確實性 그 自體와 마찬가지로 計算可能한 狀態로 還元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벤담主義哲學에서 人間이 一般倫理的 行爲를 할 때 影響을 받는다고 假定하는 苦痛과 快樂 또는 利得과 損失의 벤담式 計算 바로 그것이다.」<sup>(5)</sup>

이와 같은 케인즈의 銳利한 指摘은 既存의 新古典派經濟學에 대한 根本的인 方法論上的 批判으로 理解될 수 있다. 經濟學이 人間行爲 그중에서도 특히 經濟行爲를 研究對象으로 하는 이상 人間行爲의 樣式에 관한 假定이 經濟理論體系에 있어서 本質的으로 重要的 役割을 행함은 疑問의 餘地가 없다. 그런데 傳統的인 新古典派經濟學에 있어서의 人間行爲에 관한 基本公準은 人間이 언제 어디서나 合理的으로 選擇하고 行動한다고 하는 것이다. 원래 新古典派經濟學에서는 복잡한 現實을 分析하기 위한 便宜上의 出發點으로서 로빈슨 크루소의 經濟를 假想하지만 크루소야말로 合理的 經濟人의 典型的인 標本이다. 크루소經濟의 다음 段階로서 市場을 分析하는 경우에도 거기에 나타나는 經濟現象은 궁극적으로는 個別的인 經濟人의 合理的인 選擇과 行動에 還元시킬 수 있다. 이때 個別的 經濟人은 모두 確實한 知識과 완전한 豫見의 기초 위에서 苦痛과 快樂, 利得과 損失을 精確히 計算한 끝에 가장 合理的인 行動을 選擇하는 것으로 暗默的으로 假定된다. 여기에 벤담의 功利主義

(5) Keynes [8, p.184]

가 그 哲學의 基礎를 이루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sup>(6)</sup> 이러한 合理的인 經濟人의 假定은 아담 스미드 이래 經濟學의 가장 基本的 公準이 되었지만 그것이 가장 論理整然하고 앞뒤 矛盾없이 適用된 것은 역시 限界革命 이후의 新古典派經濟學에서이다. 사실 新古典派經濟學에서 이러한 公準을 除去시켜 버린다면 과연 무엇이 남을런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이러한 經濟人의 合理的이면서 利己的인 行動은 一見 無秩序와 混亂의 角逐場을 낳을 것 같으나 실은 그와는 정반대로 아담 스미드에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自然的 秩序의 世界로 引導되며, 왈라스에 와서는 市場에서의 摸索過程에 의해 經濟의 一般均衡이라는 地上天國으로 引導되는 것이다.

이러한 調和로운 世界觀은 결국 人間의 行動이 確實한 知識과 完全한 豫見의 基礎 위에서 決定된다고 假定할 때 비로소 成立할 수 있는 것임은 명백하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行動의 가장 직접적인 結果 밖에는 아무 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狀況 속에서 과연 어떻게 本當의 合理的 計算이 가능할 것인가? 이러한 難點을 打開하는 한가지 窮餘之策은 確率에 依存하는 것이다. 즉 어떤 事象 A가 일어날지 어떻게 確實하지 않을 때 그 事象에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快樂 또는 苦痛의 크기에 그 事象이 일어날 確率을 곱함으로써 얻어지는 數學的 期待值를 다른 事象 B의 그것과 比較함으로써 合理的 選擇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위에서 케인즈가 指摘한 바와 같이 不確實性을 確實性과 마찬가지로 計算可能한 狀態로 還元시키는 方法이다.

그러나 케인즈의 見解에 따를 것 같으면 이러한 方法이야말로 根本的인 誤謬에 빠져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不確實性이란 것은 確率으로써 捕捉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概念과는 전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케인즈에 의하면 틀렛트경기나 사람들의 豫想壽命, 심지어는 날씨까지도 不確實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事象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確率로 表示할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인즈가 말하는 不確實한 事象이란 예컨대 「유럽戰爭의 屢望이라든가 20年 뒤의 銅의 價格과 利子率, 새로운 發明의 陳腐化, 또는 1970년의 社會體制下에서의 民間資本家의 地位 등과 같은 것으로서 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럴듯한 確率을 計算할 科學的인 基礎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아무 것도 모를 뿐이다.」<sup>(7)</sup>

말하자면 케인즈는 여기에서 確率로 表示할 수 있는 危險의 概念과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不確實性의 概念을 엄격히 區分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不確實한 事象에 대해 任意的 確率을 附與해보았자 그것은 無意味한 일이다. 不確實性이란 바로 그 確率에 대한 우리의

(6) 功利主義는 一見 매우 合理的인 것 같으나 실은 小人輩의 行動哲學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人類에 큰 貢獻을 남긴 偉人치고 이리 식으로 計算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7) Keynes [8, p.185]

信賴가 극히 微弱한 그러한 狀況을 가리키는 것이다. 「確率이 높다고 해서 낮은 確率보다 더 確實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確率이 높은 낮은 관계없이 不確實性이란 確率 그 自體에 대한 信賴의 缺乏으로 특징지워지기 때문이다.」<sup>(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生活을 營爲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決定하고 무언가 行動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이러한 곤란한 狀況 속에서 우리는 어떤 方式으로 行動함으로써 合理的 經濟人의 體面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케인즈에 의하면 人間은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할 여러가지 便法을 考案해내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래의 세가지이다.

「첫째, 우리는 過去의 經驗을 客觀적으로 檢討하는 것 보다는 現在가 오히려 未來에 대해 더 有用한 길잡이가 된다고 假定한다. 바꾸어 말하면 실제 그 性格에 대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未來의 變化를 無視해 버리는 것이다. 둘째, 우리는 價格과 既存產出物의 性質에 表現되어 있는 既存의 輿論의 狀態가 未來에 대한 展望의 正確한 集約에 根據를 두고 있다고 假定함으로써 어떤 새롭고 적당한 資料가 나타나지 않는 한 그것을 그대로 認定해 버리게 된다. 셋째, 우리들은 自身の 個人的 判斷이 無用한 것을 알고는 아마 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다른 사람들의 判斷에 依存한다. 즉 우리는 多數 또는 平均의 行動에 合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各個人이 서로 他人을 模倣하려고 노력하는 社會心理는 바로 다름아닌 慣習的 判斷(conventional judgement)을 낳게 된다.」<sup>(9)</sup>

이러한 原理에 따르는 사람들의 行動은 그 基礎가 너무나 薄弱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돌발적이고 급격한 變動의 물결에 휩쓸리기 쉽다. 政治的, 社會的, 經濟的 諸要因의 조그마한 變化에도 人間의 行動은 큰 影響을 받게 되고 確實성과 秩序, 靜態의 世界는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린다. 새로운 恐怖와 希望이 人間의 行動을 左右하며 理性과 완전한 豫見이 支配하던 곳에 이제는 「無知의 어두운 힘」이 도사리게 된다.<sup>(10)</sup> 케인즈에 의한 無知의 強調은 종래의 理想主義的 合理主義의 觀點을 脫皮하여, 있는 그대로의 現實을 觀察한 데에서 일어난 結果이다.<sup>(11)</sup>

人間에게 있어 未來란 불가피하게 無知의 世界이므로 未來事에 관한 어떤 選擇을 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不確實性을 內包하지 않을 수 없다. 未來로부터 標本을 抽出함은 不可能한 일이므로 不確實性의 問題를 危險의 問題로 單純化시키는 것 역시 不可能하다. 이러한 不

(8) Weintraub [20, p.532]

(9) Keynes [8, pp.185-86]

(10) 이러한 意味에서 삭랄은 케인즈經濟學을 「無秩序의 經濟學」이라고 命名하면서 新古典派의 秩序의 經濟學과 對比시키고 있다. G.L.S. Shackle [18, pp.133-34]

(11) 미니는 케인즈의 이러한 思考를 19世紀 유럽의 哲學界를 風靡한 反合理主義와 관련시키고 있다. Mini [10, pp.244-66] 참조.

確實한 狀況속에서 人間의 合理的 行動은 크게 制約되며 本當의 功利主義는 決定的인 難點에 부딪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哲學을 方法論的 基礎로 삼는 新古典派經濟學도 그 地盤이 根本的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 新古典派經濟學은 人間의 合理的 選擇을 基本的인 公準으로 삼음으로써 얼핏보면 매우 論理的이고 矛盾없는 理論體系를 構築한 것 같으나 실은 그것은 確實性이란 假想의 舞臺위에서 全知的 經濟人을 主人公으로 하는 巧妙한 人形劇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케인즈는 現實에 대한 銳利한 直觀과 깊은 洞察力으로서 新古典派人形劇의 虛構性을 看破하였고 그의 偶像破壞의 精神은 자기가 받은 教育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과감한 叛旗를 들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는 新古典派經濟學을 가리켜 「우리가 未來에 대해 아주 조금밖에는 모른다는 事實을 捨象해 버린채 現在를 分析하고자 하는 精巧하고도 洗練된 技法의 하나」<sup>(12)</sup>로 告發하였던 것이다.

## 2. 期待와 케인즈의 理論模型

이상에서 우리는 케인즈가 未來는 不確實하다고 하는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事實의 認識을 基礎로 하여 이러한 事實을 전혀 無視한 新古典派經濟學에 대해 根本的인 方法論的 批判을 提起하였음을 밝혔다. 그러면 케인즈 自身은 이러한 難題를 어떻게 方法論的으로 解決하였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不確實性이 支配하는 世界에서는 未來에 대한 사람들의 期待가 그들의 行動에 決定的인 影響을 미치므로 이를 正식으로 理論體系內의 重要한 變數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래 케인즈는 『貨幣論』에서만 하더라도 變數의 實際値와 期待値를 區別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1934년에 쓴 一般理論의 草稿에서는 벌써 兩者의 區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期待란 概念이 매우 重要한 役割을 수행하고 있다.<sup>(13)</sup> 즉 케인즈는 雇傭函數, 消費函數, 投資函數를 각각

$$D_w = F(N)$$

$$C_w = f_1(N, r, E)$$

$$I_w = f_2(N, r, E) \quad (\text{단 } N \text{은 雇傭, } r \text{은 利率率, } E \text{는 長期期待})$$

로 定義한 뒤 雇傭水準  $N$ 은

$$F(N) = f_1(N, r, E) + f_2(N, r, E)$$

에서 決定된다고 說明하고 있다. 이러한 說明은 그후의 『一般理論』의 有效需要의 原理와 大同小異하지만 다만 한가지 注目할만한 것은 長期期待  $E$ 라는 變數가 消費函數와 投資函數

(12) Keynes [7, p.186]

(13) 여기에 대해서는 Patinkin [12, pp.73-75] 참조.

에 직접 포함되어 있다는 事實이다. 여기에서  $E$ 의 變化는 函數 자체를 移動시키는 것으로 假定된다.

그런데 『一般理論』에 오게되면 消費函數와 投資函數에서  $E$ 라는 變數는 자취를 감추고 만다. 그 理由는 무엇인가 하면  $E$ 라는 變數가 有效需要의 原理를 說明하는 데 適合하지 않기 때문이다. 되풀이해서 말하자면 不確實한 世界에 있어서 사람들의 期待는 전혀 豫測할 수 없을 정도로 不規則적이고 可變의인 性質을 띠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變數를 導入하는 限 우리는 安定的인 函數關係를 想定할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은 케인즈가 自身の 가장 重要한 理論的 貢獻이라고 생각한 有效需要의 原理를 說明하는 데 오히려 거치장스러운 물건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리하여 케인즈는 不確實性내지 期待라는 概念과 有效需要의 原理라는 두가지 重要한 理論的 革新을 叙述하는데 있어서의 二律背反에 직면하게 된다. 물론 兩者가 서로 矛盾되는 性質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後記하는 바와 같이 投資函數에 있어서는 不確實성과 期待가 결정적인 重要性을 가지기는 하지만 이를 어떠한 理論的 模型으로 表現하는가 하는 叙述方式에 있어서의 二律背反인 것이다. 이러한 二律背反을 回避하는 한가지 길로서는 일단 完전한 確實性의 假定위에서 理論模型을 定立한 뒤 단계적으로 人爲的 假定을 除去해 나감으로써 現實에 점차 接近하는 方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야 말로 케인즈가 批判한 新古典派의 方法 바로 그것이다.

그리하여 케인즈가 構想한 方法은 確實性이나 完全情報 따위의 非現實的 假定을 버리고 不確實성과 期待를 理論體系 속에 정식으로 導入하되 이들 要因이 經濟體系에 미치는 影響에 대해 여러가지 相異한 假定을 설정함으로써 나타나는 結果를 比較, 分析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크레겔이 指摘하는 바와 같이 이 問題를 다루는 케인즈의 理論模型은 세가지 類型으로 나뉘어지는데 이들 세 模型의 差異는 不確實성이나 期待의 有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要因이 經濟體系에 미치는 影響을 어떻게 假定하느냐 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14)

#### 첫째, 靜態均衡模型(The Model of Static Equilibrium)

長期期待는 一定한 水準에서 不變이고 短期期待는 항상 實現된다. (15) 그리고 長期期待와 短期期待는 서로 獨立的이어서 兩者사이에는 아무런 相互作用도 없다. 주어진 長期期待에 따라 經濟의 總需要와 總供給曲線이 그려지고 두 曲線이 만나는 點에서 有效需要가 決定된

(14) Kregel [9]

(15) 케인즈에 있어 短期期待란 企業가가 생산하는 產出物의 賣上額에 대한 期待이며, 長期期待란 資本設備에 投資함으로써 먼 장래에 얻을 收益에 대한 期待를 말한다. Keynes [7, pp.46-47] 참조.



다. 그리고 有效需要의 크기에 따라 雇傭水準이 決定된다. 즉 有效需要의 原理는 期待가 항상 實現된다는 假定下에서도 展開될 수 있다. 이러한 模型은 一見 新古典派의 靜態模型과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兩者 사이에는 不確實성과 期待가 存在하느냐 않느냐의 差異가 있는 것이다.

#### 둘째, 定常均衡模型(The Model of Stationary Equilibrium)

여기에서 長期期待는 역시 不變이어서 安定的 函數關係를 定義할 수 있으나 短期期待는 實現되지 않을 수 있다고 假定된다. 그러나 短期期待가 實現되지 않더라도 長期期待에는 아무런 影響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假定된다.<sup>(16)</sup>

지금 短期期待가 무너져 失望한 企業家가 있다고 하면 그는 有效需要에 대한 期待를 修正하여 一定한 總供給曲線 위에서 약간의 試行錯誤를 거친 뒤 드디어 有效需要의 點에 도달할 수 있다. 이 模型은 有效需要의 原理의 前提條件으로서의 不確實성과 期待의 意義를 強調하고 兩者가 相互決定의 關係에 있음을 보여준다.

#### 세째, 移動均衡模型(The Model of Shifting Equilibrium)

이것은 케인즈의 완전한 動態的 模型으로서 여기에서 長期期待는 可變的이며 短期期待는 實現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보통이다. 長期期待와 短期期待는 서로 影響을 주고 받는다. 短期期待가 實現되지 않을 경우 定常均衡模型과는 달리 이 模型에서는 새로운 有效需要의 點에 도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短期期待의 失望에 따라 사람들의 流動性選好, 資本의 限界效率, 消費性向 따위가 모두 變動하고 그 결과 總需要曲線과 總供給曲線 자체가 끊임없이 移動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經濟體系는 總需要 및 總供給曲線 위에서 均衡點을 향해 運動하지만 曲線 그 자체가 移動하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할 수는 없다. 이 模型은 바로 「未來에 대한 見解의 變化가 現在의 狀況에 影響을 미친다」<sup>(17)</sup> 現實을 說明할 수 있는데 케인즈는 예컨대 金融政策의 效果를 論議할 때 이 模型을 念頭に 두고 있었던 것 같다. 즉 通貨量을 增加시킬 때 靜態的인 分析에서는 利子率이 下落하겠지만 移動均衡模型에서는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通貨量의 增加라는 事件이 사람들의 期待에 不安感을 불어넣게 된다면 流動性選好가 增加하여 오히려 利子率의 上昇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金融政策의 效果에 대한 케인즈의 懷疑는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動態的 思考에 根據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6) 일찌기 하아트는 이러한 假定에 대해 非現實的이라고 批判한 바 있다. Hart [6, pp.419-20]

(17) Keynes [7, p.293]

### III. 不確實性과 케인즈의 經濟理論

우리는 II에서 케인즈가 確實性과 全知의 世界를 研究對象으로 한 新古典派經濟學의 方法論을 批判하고 不確實性과 期待의 概念을 그의 理論模型의 礎石으로 삼았음을 考察하였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케인즈의 經濟理論에 있어 이들 概念이 어떠한 位置에서 어떠한 役割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問題를 檢討해 보기로 한다. 不確實性과 期待는 케인즈經濟學에 있어 必須不可缺한 概念이지만 이들이 가장 큰 影響을 미치는 것은 무엇보다도 資本의 限界效率과 流動性選好의 두가지 心理的 現象에서이다. 이 두가지 分析用具는 각각 케인즈의 投資理論과 貨幣理論의 核心을 이루는 것이다.

#### 1. 投資理論

周知하는 바와 같이 케인즈理論에 있어서 有效需要는 投資와 消費의 두가지 要素로서 구성되는 바 後者は 所得에 따라 움직이므로 受動的이고 安定的인데 비해 前者는 能動的이고 不安定한 性格을 가지고 있다고 흔히 이야기된다. 말하자면 投資는 景氣變動의 지렛대로서 기능하며 資本主義經濟의 不安定을 가져오는 張本人이라 해도 결코 過言이 아닌 것이다. (18)

그러면 投資가 이렇게 不安定한 理由는 어디에 있는가? 케인즈에 의하면 投資는 利子率과 資本의 限界效率에 따라 決定되며 投資의 不安定性은 바로 資本의 限界效率의 不安定한 性格에 基因한다. 資本의 限界效率은 결국 資本財의 未來의 豫想收益의 系列에 依存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豫想收益의 系列이다. 케인즈는 이 點을 다음과 같이 力說하고 있다.

「……현재 附加的인 資本量을 使用하여 획득할 수 있는 價値의 增分과, 附加的인 資本資產의 全壽命期間을 통하여 획득하리라고 期待되는 增分の 系列, 즉  $Q_1$ 과  $Q_1, Q_2, \dots, Q_n, \dots$ 의 完전한 系列 사이의 區別을 同한히 한 것이 이제까지 많은 混同과 誤解의 主要한 原因이 되었던 바 이 兩者를 엄밀히 區別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經濟理論에 있어서의 期待의 位置라고 하는 一般적인 問題를 포함한다. 資本의 限界效率에 관한 대부분의 論議는 收益의 系列 중  $Q_1$  이외의 값에 대해서는 전혀 注意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8) 이 점을 특히 強調하는 사람은 민스키이다. 그는 이제까지 무시되어 온 케인즈經濟學의 本質的 側面으로서 1) 不確實性下의 意思決定, 2) 資本主義經濟의 循環的 性格, 3) 資本主義經濟의 金融關係의 세가지 點을 들고 있는데 資本主義經濟의 循環的 性格은 投資의 不安定性에 基因하며 이것은 결국 不確實性下의 意思決定과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Minsky [11] 참조.

이것은 모든  $Q$ 의 값이 同一한 靜態理論에서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 한 成立할 수 없다. 資本이 현재의 時點에서 그 限界生産力 만큼의 報酬을 받는다고 하는 通常의인 分配理論은 오직 定常狀態에서만 成立한다.<sup>(19)</sup>

正統的인 新古典派經濟學에 따르면 資本에 대한 需要 즉 投資需要曲線은 資本의 限界生産力曲線에서 그대로 誘導되며 資本의 價格인 利子は 그 限界生産力에 의해 決定된다. 즉, 케인즈의 用語에 따르자면  $Q_1$ 이 資本의 限界生産力에 해당하며 投資를 決定할 때에는 오직  $Q_1$ 만이 문제가 된다. 新古典派가  $Q_2$  이후의 모든  $Q$ 의 系列에 대해 전혀 無關心한 까닭은 그것이 모두  $Q_1$ 과 같은 값으로 想定해버리거나 아니면 애당초 未來라는 歷史的 時間을 아예 無視해버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意味에서도 우리는 新古典派經濟學이 定常狀態를 對象으로 하는 靜態理論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未來를 捨象해버리거나 아니면 未來를 認定한다고 하더라도 現在와 同一한 것으로 處理해버리기 때문에 本質적으로 無時間的인 性質을 가진다. 新古典派經濟學이 不確實性을 無視한 理由도 바로 여기에 있다. 時間이 存在하지 않는 곳에는 不確實性이 있을 수 없다. 「神은 過去와 現在, 未來를 동시에 꿰어 보기 때문에 天國에는 時計가 없다」<sup>(20)</sup>고 한다면 新古典派經濟學이야말로 天國의 經濟學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 注目할만한 것은 케인즈가 限界生産力說에 대한 批判을 提起하였다고 하는 事實이다. 그는 위의 引用文에서 볼 수 있듯이 資本의 限界生産力이라고 하는 概念이 定常狀態에서만 妥當함을 指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후의 소위 資本論爭(capital controversy)에서 중요한 爭點으로 등장한 資本의 測定問題에 대해서도 이미 言及하고 있다. 즉

「우선 實物로 표시한 資本 1單位를 더 雇傭함으로써 생기는 單位時間當 實物生産量의 増分과 價値로 표시한 資本 1單位를 雇傭함으로써 생기는 價値의 増分 중 어느 쪽을 문제로 삼느냐 하는 것이 애매하다. 前者는 實物資本을 定義하는 데 難點이 있으며 이는 解決이 不可能할 뿐만 아니라 不必要하다」<sup>(21)</sup>

이러한 句節은 후에 로빈슨女史가 1954년의 論文「生産函數와 資本理論」에서 銳利하게 指摘함으로써 資本論爭에 불을 지른 資本의 測定問題를 케인즈가 벌써 어느 程度 認識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케인즈는 資本의 限界效率을 마샬의 「資本의 限界效用」이란 概念과 比較하기 위해 그의 『經濟學原理』에서 해당 部分을 引用한 뒤 「위에서 미루어 볼 때 만일 이러한 식으로 利子を 決定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循環論法에 빠지는 것

(19) Keynes [7, pp.138—39]

(20) Mini [10, p.249]

(21) Keynes [7, p.138]

이라는 것을 마샬은 잘 알고 있었음이 明白하다」<sup>(22)</sup>고 말하고 있어 資本의 限界生産力으로서 利子率을 決定하는 것이 循環論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 自身 이미 認識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스라파(P. Sraffa)가 1960년에 나온 그의 著書『商品에 의한 商品生産』에서 證明한 限界生産力說의 論理的 循環性에 대해 케인즈가 30여년전에 이미 言及하고 있음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sup>(23)</sup> 그러나 케인즈는 앞서 引用한 바로 그 文句의 脚註에서는 「그러나 賃金의 限界生産力說도 꼭 같이 循環的이라고 생각한 점에서 그(마샬)는 잘못을 범한 게 아닐까?」<sup>(24)</sup>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다 아는 바와 같이 케인즈는 新古典派의 第1公準 즉 勞動需要曲線을 認定하였다. 그러므로 케인즈는 資本의 경우에는 限界生産力說이 不當하지만 勞動의 경우에는 그것이 妥當한 것으로 看做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限界生産力說에 대한 케인즈의 批判에는 徹底性이 缺如되어 있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에 와서야 비로소 이 問題가 論議되기 시작한 學界의 風土에 비추어 볼 때 그의 批判은 역시 매우 탁월한 先驅的인 業績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면 다시 本論으로 돌아와 資本의 限界效率을 吟味해 보자. 그것은 新古典派의 無時間的 概念인 資本의 限界生産力과는 本質的으로 달라서 未來의 投資收益에 대한 長期期待에 의존하는 動態的인 概念이다. 그것은 數學的 記號로 표시되어 있는 까닭에 一見 엄밀한 數學的 推算이 가능할 것 같으나 실은 그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 未來가 不確實하고 사람들의 知識의 基礎가 薄弱한 이상 資本의 限界效率을 推算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설사 推算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根據도 없는 群衆心理의 물결 속에 휩쓸려 쉽사리 사라져 버린다. 그러므로 「순수한 長期期待에 基礎를 둔 投資는 너무나 어려워 오늘날 거의 實行不可能에 가깝다.」<sup>(25)</sup> 뿐만 아니라 더욱 事態를 惡化시키는 것은 20世紀의 高度로 발달한 株式市場에서의 극성스러운 投機活動이다. 케인즈는 資本調達을 위한 株式市場의 機能을 肯定하면서도 다른 한편 그것이 企業의 投資活動에 미치는 不安定한 影響을 憂慮하고 있다. 「投機家들이 企業이라는 꾸준한 강물 위의 물거품이라면 그들은 아무런 害惡도 가져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企業이 投機라는 소용돌이 위의 물거품이라면 事態

(22) Keynes [7, p.140]

(23) 그러나 兩者의 意味는 약간 다르다. 스라파는 利子率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資本價値를 알아야 하고 이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 利子率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指摘하는 데 대해 케인즈는 利子率을 決定하는 것은 資本의 限界生産力이지만 실제 이를 計算할 수 없고 다만 現實의 利子率에서 거꾸로 資本의 限界生産力을 類推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24) Keynes [7, p.140]

(25) Keynes [7, p.157]

는 深刻하다.」<sup>(26)</sup>

投機로 인한 不安定性 이외에도 無謀하게라도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人間性의 特質로 인한 不安定性이 존재한다. 케인즈는 다음과 같이 喝破하고 있다.

「완전한 成果가 먼 未來에 걸쳐 나타나는 어떤 積極的인 일을 해내려고 하는 우리들의 決意의 아마도 대부분은 數量的 利益과 數量的 確率을 곱한 加重平均의 結果로서가 아니라 動物本能(animal spirits), 즉 非活動 보다는 活動을 택하는 自發的 衝動의 結果로서만 행해질 수 있다.……그러므로 만일 動物本能이 無力해지고 自發的 樂觀論이 흔들리게 되어 우리들이 數學的 期待值에만 의존케 된다면 企業은 衰微, 沒落할 것이다. 비록 損失의 두려움도 過去의 利潤의 希望과 마찬가지로 전혀 根據없는 것일지라도.」<sup>(27)</sup>

이렇게 본다면 케인즈에 있어 投資는 資本의 限界效率이라기 보다는 人間의 衝動에 달려 있다.

이러한 思考方式과 新古典派의 合理的인 經濟人의 哲學과는 도저히 和合할 수 없을만큼 對照的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케인즈가 철저히 非合理主義의 旗幟를 울리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음의 句節에서 뚜렷이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非合理的인 心理의 물결에 달려 있다고 결론내려서는 안된다. 아니 반대로 長期期待의 狀態는 持續的인 것이 드물지 않으며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要因들이 相殺效果를 발휘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다만 未來에 影響을 미치는 人間의 決意는 그것이 個人的인 것이든, 아니면 政治的, 經濟的인 것이든 관계없이, 數學的 計算을 해낼 基礎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數學的 期待值에 의존할 수는 없다고 하는 事實과, 그리고 우리의 合理的인 自我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選擇하며, 가능하다면 計算도 하지만, 드물지 않게 변덕이나 感情, 機會로 인한 動機로 後退해버리며, 결국 수레바퀴를 돌리는 힘은 行動하고자 하는 우리의 先天的 衝動이라고 하는 事實을 스스로 想起하고 있을 따름이다.」<sup>(28)</sup>

## 2. 流動性選好說

케인즈經濟學에 있어 不確實성과 期待가 必須不可缺의 중요한 役割을 수행하는 또 하나의 分野는 貨幣理論 그중에서도 특히 流動性選好에 관한 部分이다. 「貨幣의 重要的 性質은 무엇보다도 現在와 未來를 連結시켜주는 巧妙한 裝置라는 데 있으므로 期待의 變化가 現在의 活動에 미치는 效果를 論議하려면 貨幣的인 視角에서가 아니고는 애당초 論議를 시작조차

(26) Keynes [7, p.159]

(27) Keynes [7, pp.161—62]

(28) Keynes [7, pp.162—63]

할 수 없다」<sup>(29)</sup>고 하는 케인즈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케인즈經濟學에 있어서 不確實性, 期待와 貨幣는 뿔레야 뿔 수 없는 밀접한 關係에 있다. 貨幣는 本質的으로 不確實한 未來를 現在와 連結시켜 주는 機能을 수행할 뿐 아니라 不確實성과 期待라는 要素는 物物交換經濟보다 貨幣經濟에서 더욱 그 重要性이 증대한다.

이러한 觀點은 新古典派의 貨幣觀과는 正面에서 對立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점을 좀 더 敷衍해서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貨幣의 兩大機能이 交換의 媒介와 價値의 貯藏이라고 하는 事實은 이제는 經濟學의 初學者들 가지도 잘 아는 터이지만 新古典派의 貨幣理論에 대한 케인즈의 批判의 要點은 그들이 貨幣의 價値貯藏機能을 認識치 못하였다고 하는 데 있다. 經濟學의 初學者들도 쉽게 納得할 수 있는 이러한 貨幣의 機能을 新古典派經濟學의 그 술한 大家들이 認識하지 못한 理由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 理由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들이 未來의 不確實性이란 基本的인 事實을 無視한 데에 있다. 新古典派가 想定한 確實性의 世界에서는 貨幣는 交換의 媒介物로서는 機能하지만 價値貯藏機能을 수행할 必要는 조금도 없다. 왜냐하면 確實性의 世界에서는 富를 貯藏함에 있어 貨幣를 保有하는 것 보다는 利子나 利潤 등의 金錢的 利益 또는 어떤 直接的인 效用을 가져다 주는 다른 資産을 保有하는 것이 분명히 有利하기 때문이다. 물론 未來의 어떤 支出을 행하기 위해 장래에 가서는 貨幣가 必要하게 되겠지만 그것은 現在에 이미 精確히 豫見되고 있는 것으로 假定되고 있으므로 벌써부터 貨幣를 保有할 까닭은 조금도 없는 것이다. 그 사이의 期間동안 不毛의 貨幣를 保有하는 것은 다른 形態의 資産을 保有했다라면 얻을 수 있었을 利益을 拋棄하는 어리석은 行爲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狀況에서라면 「精神病院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가 貨幣를 富의 貯藏으로 使用하려고 하겠는가?」<sup>(30)</sup> 이와 같이 新古典派의 貨幣理論에서 貨幣의 價値貯藏機能이 無視된 것은 그들이 暗黙的으로 想定한 確實性의 世界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不確實性의 世界에서는 貨幣의 形態로 富를 貯藏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정말로 精神病院에 가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現實世界가 確實性의 世界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 이겠는가?

新古典派經濟學者들이 貨幣의 價値貯藏機能을 無視하였다고 하는 事實은 新古典派貨幣理論의 支柱라고 할만한 貨幣數量說을 보면 明若觀火하게 드러난다. 거기에서는 通貨量이 去來額 또는 所得과 比例的인 關係를 가지며 사람들이 貨幣를 保有하는 유일한 動機는 그

(29) Keynes [7, p.294]

(30) Keynes [8, p.187]

것이 去來 또는 交換을 손쉽게 하는 手段이라는 데에서 由來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保有하고자 하는 貨幣의 量은 오직 去來額 또는 所得의 크기에 의해 좌우된다. 그것은 피셔의 交換方程式  $MV=PT$ , 또는 所得方程式  $MV=PO$ 로 表示하든, 아니면 케임브리지의 現金殘高數量說  $M=kPO$ 로 表示하든 마찬가지이다. 이들 方程式의 어느 구석을 찾아 보아도 未來의 不確實性이나 期待 따위의 概念은 一言半句도 눈에 띄지 않는다.

不確實性이 排除된 新古典派의 世界에서 貨幣는 價値貯藏機能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事實은 新古典派經濟學의 弱點의 一部分에 지나지 않는다. 거기에서는 애당초 貨幣가 다른 財貨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예컨대 왈라스의 摸索過程을 볼 것 같으면 모든 市場의 一般均衡이 도달되기 이전에는 去來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假定된다. 全知의 競賣人이 있어 모든 去來者들의 心中을 헤아려 본 뒤 均衡價格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去來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때 價格은 財貨와 財貨 사이의 交換比率 즉 相對價格으로 주어진다. 때로는 貨幣라는 이름의 또 하나의 財貨가 導入되어 貨幣價格이 정해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다만 計算單位(numeraire)의 役割을 담당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貨幣를 포함하진 하지 않진 관계없이 本質적으로 物物交換經濟이다. 여기에서는 「貨幣는 財貨를 사고 財貨는 貨幣를 사지만 財貨는 財貨를 사지 않는다」<sup>(31)</sup>고 하는 貨幣制度의 基本公理가 전적으로 무시된다. 「따라서 競賣期間 동안, 또는 다음 市場期까지 貨幣를 保有하는 사람은 非合理的이다. 均衡에서는 財貨와 財貨끼리 交換되고 모든 經濟財의 現在와 未來의 價値가 완전히 確實하게 결정되므로 사실 去來하는 데에는 아무런 必要도 없는 貨幣를 무엇 때문에 保有하겠는가?」<sup>(32)</sup> 이렇게 볼때 新古典派經濟學에서는 不確實性和 貨幣의 屬性이 한꺼번에 무시되어 버린다고 해도 결코 過言이 아닌 것이다.

이에 반해 케인즈理論은 貨幣經濟를 研究對象으로 하고 있을 뿐더러 거기에서는 不確實性和 期待란 要素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役割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新古典派經濟學과는 전혀 다른 性格을 가진다. 그의 流動性選好說을 볼 것 같으면 사람들이 貨幣를 保有하고자 하는 動機는 去來의 動機, 豫備의 動機, 投機的 動機의 셋으로 나뉘어진다. 이 중 去來의 動機는 傳統的 理論을 踏襲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後者의 두가지 動機는 케인즈의 獨創의 發見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가지 動機는 결국 不確實性에서 由來한다는 데에서 共通點을 가지고 있다. 不確實性은 豫備의 動機와 投機的 動機에 의한 流動性選好가 있기 위한

(31) Clower [3, pp.207-8]

(32) Davidson [5, p.141]

必須的인 前提條件이다.<sup>(33)</sup>

그런데 케인즈는 豫備的 動機보다 投機的 動機에 훨씬 큰 比重을 둔 듯하여 『一般理論』에서 前者에 대해서는 겨우 몇 줄 밖에 쓰고 있지 않은 반면 後者에 대해서는 장황하리만치 상세히 說明하고 있다. 投機的 動機에 의한 流動性選好가 있기 위한 必要條件은 「未來의 利子率, 즉 未來에 滿期가 되는 多樣한 償還期間의 利子率의 複合體에 대한 不確實性의 存在」<sup>(34)</sup>이다. 投機的 動機는 未來에 利子率이 어떻게 變化하리라는 것을 市場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豫測함으로써 利得을 보려는 것이므로 未來의 利子率이 不確實할 때 비로소 存在할 수 있다. 未來의 利子率 바꾸어 말하면 社債價格이 不確實하므로 證券市場에는 多樣한 期待가 成立한다. 거기에는 장래에 社債價格이 상승하리라고 期待하는 사람들(bulls)이 있는가 하면 하락하리라고 期待하는 사람들(bears)도 있다. 前者는 당연히 貨幣로써 社債를 購入하려고 할 것이고 後者는 社債대신 貨幣를 保有하려고 할 것이다. 後者가 많을수록 投機的 貨幣需要는 증대한다.

投機的 貨幣需要는 未來의 利子率에 대한 사람들의 期待에 달려 있지만 이러한 期待는 결국 現在의 利子率 水準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未來에 대한 豫見이 어려운 이상 믿을 데라고는 現在의 利子率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케인즈에 의하면 「投機的 貨幣需要는 주어진 利子率에 대해 一定한 數量的 關係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利子率의 絶對的 水準이 아니라 그것과 매우 安全하다고 생각되는 水準과의 隔差의 程度이다.」<sup>(35)</sup>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利子率이 하락하면 投機的 貨幣需要가 증가한다고 생각해도 무방한데 그 理由는 두가지이다. 첫째 利子率이 하락하였다고 하는 것은 곧 그것이 安全하다고 생각되는 利子率水準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한 셈이 되며 둘째 未來에 있을지도 모르는 資本損失을 補償해 주어야 할 現在의 利子率所得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理由에서 投機的 貨幣需要는  $M_2=L_2(r)$ 로 表示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要素는 어디까지나 利子率이라기 보다는 利子率의 背後에 있는 不確實성과 期待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豫備的 動機에 의한 貨幣需要에 대해서 케인즈는 定義 이상으로는 거의 아무런 說明도 하지 않았으며 다만 去來의 貨幣需要와 마찬가지로 所得의 函數로 취급하고 있다. 그리하여

(33) 데이비드슨은 케인즈에 있어서의 去來의 動機까지도 所得이 아니라 未來의 支出에 대한 期待에 依存한다고 하여 소위 財務的 動機(finance motive)를 強調하고 있으나 本稿에서는 除外시켰다. Davidson [5, pp.159—85] 참조.

(34) Keynes [7, p.168]

(35) Keynes [7, p.201]



이 두가지 貨幣需要를 합한 것을  $M_1=L_1(Y)$ 라고 表示하여 上記한 投機的 貨幣需要와 綜合하면

$$M=M_1+M_2=L_1(Y)+L_2(r)$$

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方程式이 誘導된다. 이 方程式은 얼핏보면 貨幣數量說에  $L_2(r)$ 이란 項을 새로 附加한 것에 불과한 것 같으나 兩理論사이에는 數學的 記號 이상의 本質的인 差異가 있다. 그것은 케인즈가 自身の 理論과 貨幣數量說을 比較하고 있는 다음 句節에서 明白히 浮刻된다. 「靜態의 社會, 즉 未來의 利子率에 대해 아무도 不確實性을 느끼지 않는 社會에서는 流動性函數  $L_2$  즉 貨幣退藏性向은 均衡에서 항상 0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均衡에서는  $M_2=0$ ,  $M=M_1$ 이며……(나의 理論은)  $MV=OP$ 라는 貨幣數量說의 傳統的 形態와 같게 된다.」<sup>(36)</sup>

여기에서 우리는 新古典派의 貨幣數量說은 確實性의 世界에서만 成立하는 靜態理論임에 반해 케인즈의 流動性選好說은 不確實한 世界를 다루는 動態的 貨幣理論임에 틀림없다는 事實을 알 수 있다.

#### IV. 不確實性和 케인즈以後의 케인즈經濟學

##### 1. 不確實性和 新古典派綜合

이제까지의 論議를 통해 우리는 케인즈가 現實世界에 있어서는 不確實性和 無知가 支配하며, 거기에서는 期待가 人間의 經濟行動을 결정하는 데 緊要한 役割을 수행한다는 本質的인 思考의 바탕 위에서 確實性和 全知의 假想의 世界를 舞臺로 한 新古典派經濟學의 虛構性을 方法論에서부터 根底的으로 批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認識을 投資理論과 貨幣理論에 이르기까지 앞뒤 矛盾없이 貫徹시킴으로써 可謂 不確實性의 經濟學이라고 할만한 理論體系를 構築하였음을 밝혔다. 케인즈經濟學의 基本性格에 관한 이러한 評價는 종래 우리가 익히 듣고 있는 그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데 대해 우선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잠깐만 생각해 보더라도 現實世界가 不確實하다고 하는 認識이 어려운 哲學的 熟考에서만 나올 수 있는 종류의 것은 결코 아님을 곧 알 수 있다. 케인즈가 『一般理論』의 序文에서 적절히 指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어려운 것은 새로운 思想이 아니라, 우리들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教育을 받은 사람들의 머리 구석구석에까지 가지를 띄고 있는 낡은 思想으로부터 脫出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36) Keynes [7, p.208—9]

우리가 위와 같은 케인즈經濟學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 놀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결국 新古典派綜合 이후 케인즈經濟學의 標準인 模型으로 君臨하고 있는 所得—支出理論 또는 IS-LM 模型이 우리의 思考方式을 강력히 支配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IS-LM 模型의 觀點에서 보는 한 케인즈經濟學에 있어 不確實性이나 期待 따위의 概念은 아닌 帛중의 鴻두깨가 될 수 밖에 없다. 新古典派綜合의 過程에서 케인즈經濟學의 眞髓라고 할만한 不確實性과 期待의 概念은 臈쪽같이 除去되었고 그 대신 聯立方程式體系나 부드러운 曲線에 우리의 눈은 너무나 익숙해 있는 까닭에 우리는 再生된 케인즈經濟學의 참 모습을 보기도 半信半疑할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닐까?

그러면 新古典派綜合의 過程에서 不確實性과 期待의 概念이 淘汰된 理由는 과연 무엇일까? 筆者는 그러한 結果가 결코 偶然이나 不注意에서 빚어졌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것은 新古典派綜合의 性格에서 필연적으로 派生한 結果에 불과한 것이다.

첫째, 所得—支出理論이나 IS-LM模型에 있어 케인즈經濟學은 聯立方程式體系로 構成되는 바 消費, 投資, 貨幣需要 및 供給은 一定한 方程式으로 表示되며 거기에서는 方程式의 수와 未知數의 수가 일치하기 때문에 각 變數는 一定한 解를 가진다. 聯立方程式중 投資函數는 通常的으로  $I=I(r, Y)$ 로 表示된다. 여기에서 所得이 一定하다고 假定하면 投資는 利子率의 函數로 表示되며 右下向의 부드러운 曲線도 그려질 수 있다.<sup>(37)</sup> 이것이 곧 케인즈의 投資理論인양 行勢하게 되면 우리가 III에서 考察한 資本의 限界効率의 背後에 있는 不確實性의 어두운 힘은 사라지고 변덕스러운 期待도, 動物本能도, 찾을 수 없게 된다. 애당초 不確實性이나 期待와 같은 것은 數學的으로 表現할 수 없기 때문에 IS-LM模型이라는 聯立方程式體系를 定立하는 데 있어 그것은 거치장스러운 無用之物에 지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할는지 모른다.

이러한 事情은 貨幣需要函數를 定義하는 데 있어서도 결코 例外가 아니다. IS-LM模型에 있어 貨幣需要函數는 보통  $M=M_1+M_2=L_1(Y)+L_2(r)$  또는 간단히  $M=L(Y, r)$ 로 表示된다. 이것은 III에서 보았듯이 『一般理論』에 淵源을 두는 것이긴 하지만 『一般理論』의 그것과 LM方程式과는 그 바탕의 思考方式이 전혀 判異한 것이다. 上述한 바와 같이 케인즈에 있어 流動性選好는 未來에 대한 不確實性과 期待에서 惹起되는 心理現象이며 이들 要因이 없다면 豫備的 動機와 投機的 動機는 애당초 存在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로 중요한 位置에 서있는 不確實性과 期待가 LM方程式에서는 홀연히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그 대신

(37) 아시마코풀로스는 이러한 投資函數를 批判하면서 期待收益率의 函數로서의 케인즈의 投資函數로 再定立하려고 試圖한 바 있다. Asimakopulos[1]

$Y$ 와  $r$ 이라는 하는 數學 記號만이 남게 된다. 원래 케인즈는 經濟理論에 數學을 使用하는데 따르는 危險에 대해 『一般理論』에서 분명히 警告하고 있지만<sup>(38)</sup> 流動性選好說에서는 그 自身 그러한 危險을 잠시 忘却한 것처럼 보인다. 그 결과 所得—支出理論에서 보는 標準的인 貨幣需要函數나 아름다운  $LM$ 曲線은 마치 『一般理論』에 확고한 根據를 가진 것처럼 誤解되고 新古典派綜合은 훨씬 수월하게 成功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적어도 『一般理論』에서는 不確實性이나 期待의 重要性을 말로서 되풀이하여 強調하고 있으므로 誤解를 살 염려가 없을지 모르지만 聯立方程式으로 表示된 所得—支出理論에서는 不確實性和 期待 따위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으며, 그것이 곧 케인즈經濟學의 全部인양 行勢하게 되자 케인즈의 원래의 意圖는 數式 속에 파묻혀 形體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sup>(39)</sup>

둘째, 周知하는 나와 같이 所得—支出理論은 알라스流의 一般均衡理論을 財貨, 貨幣, 社債, 勞動市場으로 나눈 經濟의 巨視的 水準에 適用한 것이다. 이러한 模型을 가지고 케인즈經濟學을 解釋하는 한 不確實性이나 期待 따위의 概念이 설 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조금도 異常한 일이 아니다. 거기에서는 方程式의 수와 未知數의 수를 比較하고 파라메터의 符號, 解의 存在與否와 唯一性, 安定性 등 諸問題가 온갖 어려운 數學을 總動員하여 심각하게 論議되지만 그 結論은 오히려 지극히 간단하여 讀者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 뿐이다. 거기에서는 不確實性이나 期待는 커녕 時間조차도 存在하지 않는다. 물론 時間을 나타내는  $t$ 라는 變數가 導入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t$ 란 것은 거의 例外없이 論理的 時間을 意味하지 歷史的 時間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다.<sup>(40)</sup>

원래 新古典派經濟學은 均衡經濟學과 同格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均衡이란 概念을 理論의 礎石으로 삼고 있지만 이것은 本質적으로 無時間的 概念이다. 이것은 時計추가 往復運動 끝에 中心點에 停止하는 데에서 類推된 物理學의 概念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過去는 돌이킬 수 없고 未來는 알 수 없는 時點으로서의 現在라고 하는 歷史的 時間 위에서 전개되는 人間의 經濟行爲와는 애당초 兩立할 수 없는 概念이다. 人間의 經濟行爲가 어떻게 하여 時計추의 往復運動처럼 돌이킬 수 있으며, 어떻게 하여 未來의 어떤 時點에 어떤 變化가 있을 것이라고 精確히 豫測할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均衡經濟學의 立場에서 한, 歷史的 時間은 度外視될 수 밖에 없으며, 時間이 存在하지 않는 곳에 不確實性이 있을 수 없고

(38) 「최근의 數理經濟學의 대부분은 그 基礎에 있는 基本假定만큼이나 不正確한 단순한 虛構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것을 使用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럴듯하면서도 아무런 謬誤없는 記號의 迷路 속에 갇혀 現實世界의 複雜性和 相互依存性을 看過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Keynes [7, p.298]

(39) 케인즈 以後의 貨幣理論에서 간혹 不確實性問題를 다루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은 거의 대부분 危險의 問題와 混同하여 確率論적으로 취급되고 있을 뿐이다. Davidson [5, pp.142—144] 참조.

(40) 論理的 時間과 歷史的 時間의 區別에 대해서는 Robinson [14, pp.23—24] 참조.

不確實性이 없는 곳에 期待 역시 無用之物이 된다. 이러한 意味에서 新古典派經濟學은 無時間의 經濟學이며 그것은 곧 天國의 經濟學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케인즈經濟學의 眞髓라 할만한 不確實性和 期待의 概念이 新古典派綜合의 過程에서 자취없이 사라진 것은 결국 *IS-LM*模型의 數學的 性格과 均衡論的 性格에 緣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늘날 케인즈經濟學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論著가 不確實性이나 期待에 대한 한마디의 言及도 없이 *IS-LM*曲線이나 聯立方程式으로 始終하는 奇異한 現象을 目擊하게 되는 것이다.

## 2. 均衡模型과 歷史模型

本稿를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問題가 남아 있다. 그것은 무엇이나 하면 未來가 現實的으로 不確實하다는 것을 事實로서 認定한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을 經濟學的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다. 케인즈의 말대로 그것은 確率論的으로 接近할 수도 없고 數學으로서 解決할 수도 없다면 도대체 어떠한 方法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물음에 대해 納得할만한 解答을 줄 수 없다면 이제까지의 우리의 모든 論議는 결국 既存理論을 破壞하기만 했지 그 廢墟 위에 아무 것도 세운 것이 없는 虛無主義의 내지 不可知論的 말장난에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다행히도 代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로빈슨女史로 代表되는 新케인즈派에서 내세우고 있는 歷史理論 또는 歷史模型에서 찾아볼 수 있다. 로빈슨女史에 의하면 케인즈革命의 要諦는 未來에 대한 期待가 不確實하다는 明白한 事實을 理論에 導入함으로써 新古典派의 均衡理論을 打破한 데에서 發見된다. 女史에 의하면 均衡模型의 打破뒤에 必然的으로 擡頭하는 것은 歷史模型이다. 「우리가 經濟行爲를 支配하는 期待의 不確實性을 認定하게 되면 곧 理論으로부터 均衡이 脫落하며 歷史가 그 자리를 메꾸게 된다.」<sup>(41)</sup> 이러한 觀點에서 본다면 「理論의 側面에 있어서의 케인즈革命은 均衡의 概念에서 歷史의 概念으로, 그리고 合理的 選擇의 原理에서 推測과 慣習에 基礎한 意思決定의 問題로 變化시킨 데 있다」<sup>(42)</sup> 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로빈슨女史가 말하는 歷史模型이란 도대체 어떠한 性質의 것인가? 우리는 그 一端을 다음의 句節에서 엿볼 수 있다.

「觀察된 歷史는 均衡經路 위의 運動으로 解釋될 수도 없고 거기에서 誘導되는 어떤 命題를 支持하기 위한 證據로서 引用될 수도 없다. 現實의 歷史에 適用될 수 있는 模型은 均衡

(41) Robinson [16, p.203]

(42) Robinson [15, p.7]

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歷史는 통상적으로는 均衡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模型을 定立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經濟에서 일어나는 技術的 條件과 그 構成員의 行動反應 등의 明細를 作成한 뒤 그것을 歷史的 時間의 어떤 特定한 時點, 特定한 狀況에 말하자면 부어 넣음으로써 그 다음에 어떤 結果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分析하는 것이다. 初期狀態에는 物質的 資料와 登場人物들의 期待의 狀態(過去の 經驗에 기초하건 아니면 傳統的 信念에 기초하건)도 포함된다. 그러면 體制는 이들 條件을 充足시키거나 아니면 失望시키는 方向으로 스스로 움직여 나갈 것이다.」<sup>(43)</sup>

이상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로빈슨 女史가 말하는 歷史模型이란 아직까지는 完成된 理論體系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체로 不確實性和 期待의 役割에 대한 케인즈의 基本的인 認識을 기초로 하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 리카아도를 中心으로 한 古典派經濟學의 問題意識과 分析方法을 採擇함으로써 新古典派의 均衡模型의 限界를 克服하려는 試圖라고 理解할 수 있다. 新케인즈派의 歷史模型이 과연 앞으로 어떠한 方向으로 發展하여 經濟學界에서 어떠한 位置를 차지하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전혀 不確實한 일이므로 確率을 가지고서도 짐작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筆者의 見解로는 이러한 基本的인 立場에서 서서 폭넓게 現實을 分析하는 길이 均衡理論의 加一層의 精緻化에 精力을 쏟는 것 보다는 훨씬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 V. 結 論

本稿를 통해 우리는 新古典派經濟學과 對立되는 케인즈經濟學의 理論的 貢獻 내지 獨創性을 종래의 通說과는 다른 立場에서 把握하려고 努力하였으며 그 결과 얻어진 結論은 다음과 같다. 원래 新古典派經濟學은 사람들이 確實한 知識과 完全한 豫見을 바탕으로 하여 苦樂과 損益을 正確히 計算한 끝에 合理的인 選擇을 행한다고 하는 邊答의 功利主義를 그 哲學的 基盤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실사 未來에 대한 不確實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確率을 適用함으로써 쉽사리 確實性으로 還元시킬 수 있는 것으로 假定된다. 이러한 基本的인 假定 위에서 消費者와 生産者의 合理的 行動이 誘導되며 그것은 摸索過程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一般均衡이라고 하는 調和로운 世界를 낳게 된다.

이러한 新古典派經濟學은 그 論理的 一貫성에 있어서는 더할나위없는 發展을 이룩하였지만 결국 架空의 確實性의 世界를 研究對象으로 하고 있는 이상 우리가 사는 現實世界와는

(43) Robinson [14, pp.25-26]

正面으로 矛盾되지 않을 수 없다. 케인즈는 現實世界가 不確實하다고 하는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事實을 認識함으로써 新古典派經濟學의 虛構性을 方法論적으로 批判하였으며 바로 이 점에 兩理論의 本質의인 差異가 있다고 생각된다. 케인즈에 의하면 不確實性이란 것은 確率을 가지고서도 豫測이 불가능한 狀況, 말하자면 그저 아무 것도 알 수 없는 그러한 狀況을 가리키며 거기에서는 合理的 計算이 애당초 있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狀況 속에서 經濟의 움직임은 사람들의 長期期待 및 短期期待에 의해 큰 影響을 받게 되므로 케인즈는 이들 要因을 그의 理論模型에 정식으로 導入하였다.

케인즈經濟學에 있어서 不確實性和 期待의 概念은 方法論的 礎石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投資理論과 流動性選好說에서도 역시 決定的으로 중요한 役割을 遂行하고 있다. 케인즈經濟學에 있어서 投資는 未來의 收益에 대한 期待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未來가 不確實한 이상 그것은 科學的인 計算보다는 오히려 動物本能과 같은 人間의 衝動에 의해 左右되기 쉬우며 資本主義經濟에서 投資가 不安定한 性格을 갖는 것도 결국 이러한 事情에 緣由하는 것이다.

流動性選好 역시 不確實性없는 생각할 수 없는 心理現象이다. 豫備의 貨幣需要는 문자 그대로 不確實한 未來에 대한 對備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며 投機的 貨幣需要도 未來의 利率의 움직임이 不確實하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期待가 각자 相異하기 때문에 비로소 存在할 수 있다. 이에 반해 新古典派의 貨幣數量說에서는 不確實성이 완전히 捨象되고 있으므로 去來의 目的 이외에 貨幣를 保有할 아무런 理由도 없다. 거기에서 貨幣는 交換의 媒介機能만을 遂行할 뿐이며 貨幣의 價值貯藏機能은 認識될 수 없었다.

이렇게 볼 때 不確實性的 概念은 케인즈經濟學의 方法論에서부터 投資 및 貨幣理論에 이르기까지 全體系에 걸쳐 必須不可缺의 중요한 位置에 있음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인즈以後의 解釋과 論爭過程에서 이러한 側面은 거의 완전히 無視되었다. 특히 케인즈革命이 新古典派綜合으로 定着化한 지금 標準的인 教科書에 紹介되어 있는 케인즈經濟學에서 不確實性이나 期待의 概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緣木求魚라고 해도 過言이 아닐 程度이다. 이와 같은 奇異한 現象은 다름아니라 케인즈經濟學이 IS-LM模型 또는 所得—支出理論이라는 聯立方程式體系로서 理解된 데에 基因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는 IS-LM模型의 數學的 性格과 均衡論的 性格이 決定的인 作用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過程속에서 케인즈革命은 失敗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고 新古典派經濟學은 新新古典派經濟學으로 復活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의 論議를 綜合해 볼 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新古典派經濟學의 虛構性을 赤裸裸하게 目擊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 強韌한 生命力에 대해서도 感

歎을 금할 수 없게 된다.

지금 로빈슨女史를 비롯한 新케인즈派에서는 不確實성과 期待의 概念에 대한 케인즈의 基本的인 認識을 吸收하면서 歷史理論 또는 歷史模型을 定立함으로써 新古典派의 均衡模型의 限界를 克服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努力이 과연 成功을 거둘 것인지 아니면 失敗하여 다만 新新新古典派經濟學의 誕生을 가져오는데 그칠지는 현재로서는 不確實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經濟學을 研究하는 目的이 架空의 世界를 遊覽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現實世界의 움직임을 解明하는 데 있다고 하는 最小限의 要求를 우리가 認定한다면 均衡模型의 加一層의 精緻化보다는 歷史模型의 開拓에 좀 더 많은 努力을 기울여야 마땅하다고 믿는다. 비록 前者의 길은 넓고 平坦하여 가는 사람이 많고, 後者の 길은 좁고 험하여 가는 사람이 적으나.

#### 參 考 文 獻

- 1) A. Asimakopulos, "The Determination of Investment in Keynes's Model,"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Aug. 1971.
- 2) ———, "Keynes, Patinkin, Historical Time, and Equilibrium Analysis,"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May 1973.
- 3) R.W. Clower, "A Reconsideration of the Microfoundations of Monetary Theory," R.W. Clower ed., *Readings in Monetary Theory*, Penguin, 1969.
- 4) A. Coddington, "Keynesian Economics: The Search for First Principl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Dec. 1976.
- 5) P. Davidson, *Money and the Real World*, Macmillan, 1972.
- 6) A.G. Hart, "Keynes' Analysis of Expectations and Uncertainty", S.E. Harris ed., *The New Economics*, Knopf, 1947.
- 7) J.M.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Macmillan, 1936.
- 8) ———,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Repr. in S.E. Harris ed., *The New Economics*, Knopf, 1947.
- 9) J.A. Kregel, "Economic Methodology in the Face of Uncertainty: The Modelling Methods of Keynes and the Post-Keynesians," *Economic Journal*, Jun. 1976.
- 10) P.V. Mini, *Philosophy and Economics*, Florida, 1974.
- 11) H.P. Minsky, *John Maynard Keynes*, Columbia, 1975.
- 12) D. Patinkin, "Keynes' Monetary Thought: A Study of Its Development,"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Spring 1976.
- 13) J. Robinson, *Economic Philosophy*, Pengiun, 1962.
- 14) ———, *Essays in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Macmillan, 1964.
- 15) ———, "What Has Become of the Keynesian Revolution?," *Challenge*, Jan.-Feb. 1974.

- 16) ———, “History versus Equilibrium,” *Indian Economic Journal*, Jan-Mar. 1974.
- 17) G.L.S. Shackle, “Keynes and the Nature of Human Affairs”, *The Nature of Economic Thought*, Cambridge, 1966.
- 18) ———, *The Years of High Theory*, Cambridge, 1967.
- 19) ———, “Keynes and Today’s Establishment in Economic Theor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Jun. 1973.
- 20) E.R. Weintraub, “Uncertainty and the Keynesian Revolution,”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Winter 1975.
- 21) 菱山泉, 「ケインズ經濟學研究序說—經濟人の決意と不確實性」, 『京都大學經濟論叢』, 第98號.
- 22) ———, 「ケインズにおける不確定性の論理」, 『思想』, 1967年 4月.
- 23) ———, 「ケインズの貨幣と不確定性の論理」, 『思想』, 1968年 4月.
- 24) 片山隆男, 「經濟理論における確定性と不確定性に関する一考察」, 『大阪商業大學論集』, 第31號.